

사설

남북정상회담과 통일불사

민족 분단 50여년의 역사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은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행보에 무엇보다도 큰 낙보임에 틀림없다. 그 동안 민족의 통일 열망과는 달리 안타까우리 만치 더디게 이루어지던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좀 더 큰 보폭으로 진행될 것이며, 그것이 결국 가까운 미래에 다시 민족이 하나 필요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에 모든 국민이 환호를 하고 있다.

불교계 또한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면서 각 종단과 단체들이 일제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표명하고 있다. 중생의 괴로움을 건지는 것을 서원하는 불교가 우리 민족에게 가장 광범위하고도 근본적인 괴로움을 주고 있는 분단 상황의 극복에 밝은 빛을 던지는 이 소식에 환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불교계는 이번의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그 동안 불교계가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해왔는가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성취한 것을 더 가까이 통일 문제 앞에 불교계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한다. 북한

의 동포들이 극한상황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얼마나 자비의 손길을 뻗었는가. 통일 뒤 북한 동포들이 우리가 힘들 때 불교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당당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불교의 사회화라는 구호 속에서 조금씩의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 수준을 방성하면서, 통일 불사를 이고득락(難苦得樂) 발고역락(拔苦與樂)을 위한 최우선의 불사로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 불사를 위한 불교의 자선은 중요하다. 민족 문화를 통해 오랜 분단의 장벽을 녹여 낼 수 있는 잠재력에 있어서 불교보다 앞서는 종교는 없다. 대립과 갈등의 극복을 근본 가르침으로 하는 불교의 교리, 삼국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던 원효선사의 화쟁사상 등은 우리의 통일 발원을 통해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뒤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처방으로 전환될 수 있다. 민족사의 질곡과 내부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을 탈피하여 불교가 현실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종교로 우뚝 서는 길은 바로 대중적 통일 발원에 불교계가 함께 펼쳐 일어서는 것이다.

신도교육, 방향설정부터

재가불자들의 신행형태가 중앙신도회 신행혁신 설문조사에 의하여 밝혀졌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실시한 신행혁신 세미나에서 발표된 '재가불자(信·解·行·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격정적인 면이 적지 않다. 이런 결과는 그간 교계의 실정으로부터 오는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응답자의 반 이상이 이미 신행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법회에 한 번에 한 번 참석하는 이가 46.7%나 오히려 놀라다고 하였다. 더구나 응답자의 반 이상이 자신의 신행활동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신행활동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시급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불자들이 불교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과거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또한 불교를 접하고 시작하는 길이 깨달음의 근본내용을 이해함을 시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복과 타력적인 붓다의 신성화 및 절 대화를 믿고 따르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불교계가 급변하는 현실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이며, 법회나 교리강좌 자체에도 개선의 여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사실 우리 불교계는 이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도들에 대한 교육이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 교

육을 소홀히 할 때 그 집단은 자기 동일성이 형성될 수 없으니 자연 구심력을 상실하게 되고 만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서 신도 교육은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신도교육의 1차적 의미는 교육을 통해 신도들을 불교 사상으로 정신무장 해나가는 의식화 작업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 교계에서는 불사의 1차적 의미가 불상을 조성하고 건물 짓는 외형적 불사 및 신앙에 치중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근본원인은 무엇인지 신도교육의 설정과 진행에 앞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그 까닭이 교육의 목표와 방향설정에 차질이 있었던 때문은 아닌지 차체에 다시 한번 냉철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체계적으로 신도교육의 단계를 나누고 그 차체에 따라 신도교육을 해야 한다. 신도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념과 목표를 대승불교의 보살정신으로 회복하고 현대적 실용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체계적인 교육과 수계 의식을 통해 통일성을 확립하고, 사찰에서는 새 신자를 위해 교육 준비를 함으로써 초심자가 소속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불자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일도 시급하다.

독자의 소리

승복 잘못입은 공예 드라마 고증 충실하게

TV 사극은 픽션이라 할지라도 그 근거는 역사적 사실임이 분명하기에, 현대적 해석은 다를지라도 역사적 근거는 분명해야 한다.

드라마에서 공예가·승려를 자처하고 승복차림으로 나오고 있는데, 공예가 입고있는 의복은 법복, 즉 가사의 차림이 틀렸다. 드라마 속의 공예가 걸치고 있는 것은 1950년대 이후에 생긴 현대식 법복(袈裟)이다. 삼국시대 이래 일제시대까지는 흥색가사를 수했으며, 오늘에 이르러 조계종은 법복(袈裟), 태고종은 흥색가사를 수하고 있다.

특히 공예가 가사를 수한 채 칼을 잡고 전장을 누비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승려의 옷은 일상 생활을 위한 채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제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예의 가사는 흥색가사로, 전장을 누빌 때는 두루마기 정도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

성보문화재 보며 '감탄' 사찰 화장실에선 '불쾌'

얼마전 원불교의 원로 교무와 함께 모 전종사찰을 찾았다. 여러 전각과 성보박물관의 유물을 둘러보며 '참 대단하다'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그분도 종교를 떠나 문화재를 보는 시각에서 같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주차장 화장실을 다녀온 우리 일행은 할 말을 잃었다. 화장실은 경악 그 자체였다. 청소를 언제 했는지, 불결하고 지독한 냄새까지 났다. 게다가 낡은 시설,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것 같았는데, 불자로서 정말 안타까웠다. 관광객들이 고찰을 찾고 돌아가는 마지막 이미

달라이라마 한국 방문 국민 대부분 원하는데...

우리 나라를 비롯해 전세계는 자본주의 물질문명의 발달로 정신문명의 빈곤을 느끼고 있다. 나라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지도자를 초청하는데 힘을 쏟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때에 달라이라마의 한국방문이 이념을 겪고 있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작년 달라이라마의 뉴욕 강연은 엄청난 인파가 몰려 센트럴 파크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한다. 그만큼 세계적 지도자라는 소리다. 그런 분을 한국에 모시는 것은 종교와 민족을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무척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고개를 흔드는 것을 보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를 생각해 본다.

IMF의 고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우리 일행은 할 말을 잃었다. 화장실은 경악 그 자체였다. 청소를 언제 했는지, 불결하고 지독한 냄새까지 났다. 게다가 낡은 시설,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것 같았는데, 불자로서 정말 안타까웠다. 관광객들이 고찰을 찾고 돌아가는 마지막 이미

평상심으로 통일문제 대하자



노귀남

노귀남 (새시대불교포럼 평화통일위원장)

남북정상회담과 북한특수 기사가 계속 관심을 모으고 있다. 흥분하거나 냉담하지 않고, 통일 문제를 보는 바람직한 시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상회담 발표에 대해, 정당들은 남북 현실과 국제정세를 꿰뚫어보는 정책으로 말하지 않았다. 아무 준비 없이 통일을 놓고 놓고 악쓰듯 서로 비난했다. 이 점은 우리 사회가 통일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잘 말해 주는 대목이었다.

서로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진정한 민족문제로 풀어나가자는 지극해야 하고, 무엇이 걸림돌이 되는지 살펴야 한다. 냉정시각을 버리는 일부터 시작하여, 북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남북이 함께 고민해야 할 인권문제는 실태처럼 얽혀있는 현안이다. 국가보안법 정거수 탈북자 문제도 비롯해서, 겨우 회복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경제난 속에 위협받고 있는 북한 인민의 생존문제는 어쩔 수 없이 국제 정치경제적 관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민·관이 비관적 동반관계로 협력하여 구체적인 대응책을 연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감되어 있는 탈북민들의 인권과 강제 노동 문제는 원칙적 주장만 할 수 없이 복잡하다.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강제송환된 탈북자를 문제가 시사했듯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나 각국의 이해를 고려해, 정부와 민간 및 언론이 적절히 역할을 나눠야 한다.

또한 남북 자본과 북한 노동력의 결합으로 기대하는 복합효과도 이윤창출이나 노동력의 가치가 다른 북한과 함께 해야 할 일임으로 환상적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 연구된 실무능력이 뒷받침되고, 우리 스스로도 생각을 바꾸는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다.

그러자면, 불교계 또한 전체 역량을 모아, 전문가와 불자대중이 결합하는 정책 제시와 실천이 가능하도록, '열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뚜렷한 의지와 제도가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갓바워서 기도올리며 가방으로 자리 독차지

얼마전 팔공산 갓바위에 다녀왔다. 갓바위 부처님 앞에는 불자들이 하나의 틈도 없이 빼곡하게 앉아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 틈틈이 불자들이 보인 모습은 너무도 실망스러웠다. 가방으로 자리를 차지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앉을 수도 없게 하면서 기도한답시고 탐욕스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다.

불교공부를 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추태를 보이는 걸까. 남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아야 진정한 불자이다. 그런데

독자 사진 신록사 법당의 제비둥지



사진제공=김득홍(서울 양천구 목4동)

“불교TV 하나 못살릴 정도로 불교계의 원이 그렇게 미약하니까.”

파산 위기에 놓인 불교TV를 바라보며 내뿜는 불자들의 탄식과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불교TV는 현재 개국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10일 금오전기축의 건물 명도와 경매 신청으로 언제 문을 닫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불교 TV는 금오전기축의 경매 신청에 앞서 '제불입금 지불에 대한 방송기차입' 소송을 걸어 급한 불은 끈 상태지만 이것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금오전기축은 지난해 9월부터 건물 명도소송을 이미 법원에 신청해 놓고 있어 언제든 공탁금을 내고 집행 절차만 밟는다면 2~3일안에 건물 퇴거명령



김주일 (취재2부 기자)

강 건너 불구경 활전가

을 내려 송송을 중단시킬 수 있다. 실제로 95년 개국 이후 1년을 제외하곤 계속 밀리기 시작한 임대료 골퍼리를 알아온 금오전기축은 마지막으로 이달말 이사회가 열릴때까지만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직원들도 이달말까지 경영진에서 별다른 처분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회사를 떠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경영진과 불교TV 이사들은 한결같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소극적인 자세만 취하고 있다.

이제는 대주주가 누구든지 간에 범불교적으로 불교TV를 살리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위성방송 출법을 앞두고 있는 디지털 영상시대에 불교TV가 과산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포교 전략으로 불교는 퇴보하게 되고 만다.

우선 대주주인 통도사가 경영을 정상화시킬 능력이 없다면, 주식을 조계종단에 과감히 반납하고 종단 차원에서 '기금 마련 모금 방법'을 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사들도 투자를 할 수 없다면 주식 감자를 통해 새로운 투자자 영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불교TV 직원들도 회사를 살리겠다는 열의를 갖고 광고 유치 및 수익 사업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불교TV의 파산으로 인해 교계의 영상 포교 방송을 우리 손으로 지키지 못했다는 불명예로 부러는 것이 아니라 한다.

월간 '불광'·목아불교박물관 주최

제6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그림그리기대회

“어린이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부처님을 그립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 이 날은 우리들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대접하는 날입니다. 월간 불광과 목아불교박물관에서는 이 날을 어린이들 가슴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부처님을 모셔주는 날로 정했습니다. 제6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에 어린이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부처님이 좋아요!



참가 부문

- 크레파사 부문 - 유치원~초등 1, 2학년
- 수채화 부문 - 초등 3, 4학년
- 목판화 부문 - 초등 5, 6학년

- 일시: 2000년 5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여주목아불교박물관 (0337-886-9952)
- 대상: 전국의 어린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 시상: 우등(1명, 상장 및 상품) 각학년별 으뜸상 (6명, 상장 및 무상) 각학년별 비금상 (6명, 상장 및 무상) 유치부 으뜸상 (1명, 상장 및 무상) 유치부 비금상 (1명, 상장 및 무상) 보람상 (500명, 상장 및 상품) 한마음상 (3명, 상장 및 상품)
- 참가비: 5,000원 (10명 이상 단체 참가시 1인당 3,000원)
- 준비용: 참가 부문별 준비물(크레파사, 그림물감, 조각도, 화판 등) 모자착용, 돗자리, 도시락
- 기념품: 기념 티셔츠, 동화책, 음유수 등 증정 (선착순 1,000명)

종목	내용	참고
기발서바이벌	학년별로 6명의 출발해서 불공에 숨어 있는 기발 찾아내기	찾아야 할 기발 3개
퀴즈서바이벌	10개 질문! 50명의 어린이가 한번에 참가. 교리 상식 등의 10개 문제를 도화지에 적어 맞추는 주권시 퀴즈	10문제를 다 통과하는 어린이는 모두 합격 (4·5·6학년대상)
0 아니면 X???	쉬운 교리, 상식을 잇다. 불리다로 선택해 줄어가는 퀴즈	5문제를 다 통과하면 합격 (유치원, 1·2·3학년대상)
철인서바이벌	송추는 오리발 - 신화지전기 - 매달매달 럭비공	세 종목 연속참가 (학년별 선착순 모집, 예선 예정)
가족서바이벌	이백과 함께 울버릭 타이타닉	타이타닉(?) 자세에서 응답은 세수대야 들고 있기
친구와 함께	일 바진 목에 문지기	구멍난 종이컵으로 물나르기
친구와 함께	아개동무 사랑 줄다리기	외발로 아개동무해서 줄다리기

* 행사 당일 비가 올 경우에는 목아불교박물관 실내에서 대회가 열립니다.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이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지 않습니다.

참가 신청 및 문의

월간 '불광' 02) 420-3200 · 목아불교박물관 0337) 886-9952-4 · 선제이벤트 0502) 317-2555